

서울대학교의 뿌리



韓 基 彦

(49년 師大卒 · 母校 명예교수)

의과대학은 국립서울대학교 창설 당시부터 졸업생 위대한 업적의 자라났고 그 밑에 醫學系 캠퍼스를 형성해 온데 이르렀다. 더욱이 부속병원 앞 에 세워져 있는 時計塔이 있는 건물은 오늘날의 醫大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뿌리의 깊이를 알 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 시계탑은 1908년 4월 23일 일제의 일이다.

지금의 醫科大學은 京城大學醫學部와 京城醫學專門學校가 統合해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京城醫學專門學校의 沿革은 1899년 에 설치된 官立京城醫學學校에 있음을 알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大學校二十年史』(20~30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 대학은 京城大學의 학부와 京城醫學專門學校의 통합개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국가와 인부사 회발전의 이바지를 위하여 인문과 그 광범위한 응용을 교육연구하는 것을 교육방침으로 하여 國立서울大學校의 1기관으로 하 였다』고 전제하고 있어서 말하기를 『醫大의 母體의 하인인 京城醫學專門學校는 그 기원을 1899년(光武3년) 3월 官立醫學官制가 발포된 이래 京城醫學專門學校(京城醫學專門學校)에 설치된 官立京城醫學學校에 돌 수 있다』고 하 여 지금의 醫大의 뿌리는 「官立京城醫學學校」(1899)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당시 京城醫學專門學校의 문교부에 해당하는 學部수관으로 전 총리대신 金弘集의 舊邸를 교사로 사용하였는데 校長은 우리나라 근대의학사의 種痘法과 아물과 명을 남긴 池錫永이었다. 그는 의학의 노

이를테면 泰山(丁若鏞)이 편찬한 二千年文인 『兒學編』을 당시 사정에 맞게 韓·中·英·日 4개국어로 풀이한 것으로 해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養文庫』 소장되어 있는데, 본래 『兒學編』은 周興嗣편인 『千字文』이 문자 교육에 큰 절충이 있음을 알고 일찍이 燕巖 朴趾源

學 大 科 醫

京城大學醫學部 · 京城醫學專 통합 발족

蓮建洞 시계탑 건물은 醫大 상징물



◇ 연건동에 자리한 醫大 캠퍼스 전경

로 개칭되었고, 의부수관이래 전임교수 6명, 부교수 3명, 학생 1명, 미모인 1명, 1명을 두었다. 이리하여 1909년(2월)에는 大韓醫院官制의 개정과 大韓醫院附屬學校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듬해(1월)에는 대한의원부속학교 규칙의 발포와 더불어 동교에 醫學科(4년) 외에 藥學科(3년)와 產婆科(2년)看護學科(2년)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로부터 얼마후

당시 제1회 졸업생 중 몇 분은 초창기 서울대학교 醫科大學 교수로서 활약하였고 또한 학장으로서의 대변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金晟鎭 박사와 明柱完 박사가 학장으로서도 명성을 떨쳤었다. 오늘날 醫科大學은 醫學科와 看護學科 두 학과로 되어 있으며, 한편 附設結核研究所를 비롯하여 附設癌研究所, 附設風土病研究所, 附設國民體力科學研究所, 附設肝膽研究所, 附設神經科學研究所, 附設神經科學研究所, 附設醫學教育研究所 등이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메카가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날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울大學校病院』의 경우(4월 24일)에 개설된 『廣濟院』에서 찾아볼 수 있

으로 자리를 옮겼고 議政府 직할기관으로 內務大臣 이 院長을 겸하였다. 이어 1910년 일제의 강탈과 더불어 朝鮮總督府醫院으로 개칭하게 되었고, 1926년(5월) 정성제국 대학 의학부의 개설에 따라 조선총독부의원은 京城大學醫學部附屬醫院으로 이관되었고, 8·15을유광복과 더불어 京城大學의 부속병원으로 개칭하였고, 곧 이어 이듬해 본교의출발과 더불어 『國立서울大學校醫科大學附屬病院』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것이다.

한편 京城醫學專門學校의 부속병원인 醫科大學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2병원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후 6·25를 전후 과장에서이 제2병원은 首都陸軍病院이

의 醫學科는 그 뿌리가 멀 리 1899년 官立京城醫學學校에 있거니와, 한편 看護學科의 경우는 1910년(1월) 大韓醫院附屬學校에 설치된 產婆科(2년제)와 아물과 看護婦科(2년제)에서 그 뿌리를 찾게 된다. 미지였어 看護大學의 력의 독립, 승격될 것이강 령히 추진되고 있는 간호 학과」의 진부성과 그 의 사는 매우 오래인을 알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金東益교수와 奇龍顯교수의 경우를 들어 兼용 그루하고 놓고 싶은 醫科大學의 學風의 일 단에 대해보려고 한다. 靑風 金東益교수의 제자 인 金應振(39년 醫大卒)은 乙支病院醫務院長(는 그의 승승 靑風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님은 참전하고 치밀한 선전의 소유자인가 하면, 분간은 정열과 정의감에 부합하여 일찍이 京城醫學專門學校에 3·1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퇴학 처분과 獄苦를 치루시기도 하였다. 목교하여 졸업하신 뒤 天稟이 好學이시라 10 년간 연구생활로 일관하여 32세의 그 때 한 인물이로서는 하등의 별다른 의 화학사학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신권정체으로 선생님의 학구열은 변 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10 년간은 개인으로서 仁術을 베푸는데 만족하실 수 밖에 없었다』고 하여 靑風의人品과 好學 그리고 일 제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유광복과 더불어 서울대학교수로서의 그의 內科學界의 先導者다운 면모를 말 하고 있는데, 즉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 면서부터 선생님은 內科學 특히 消化器病學을 담당하 시고 연구와 후배 지도에

의 醫學科는 그 뿌리가 멀 리 1899년 官立京城醫學學校에 있거니와, 한편 看護學科의 경우는 1910년(1월) 大韓醫院附屬學校에 설치된 產婆科(2년제)와 아물과 看護婦科(2년제)에서 그 뿌리를 찾게 된다. 미지였어 看護大學의 력의 독립, 승격될 것이강 령히 추진되고 있는 간호 학과」의 진부성과 그 의 사는 매우 오래인을 알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金東益교수와 奇龍顯교수의 경우를 들어 兼용 그루하고 놓고 싶은 醫科大學의 學風의 일 단에 대해보려고 한다. 靑風 金東益교수의 제자 인 金應振(39년 醫大卒)은 乙支病院醫務院長(는 그의 승승 靑風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님은 참전하고 치밀한 선전의 소유자인가 하면, 분간은 정열과 정의감에 부합하여 일찍이 京城醫學專門學校에 3·1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퇴학 처분과 獄苦를 치루시기도 하였다. 목교하여 졸업하신 뒤 天稟이 好學이시라 10 년간 연구생활로 일관하여 32세의 그 때 한 인물이로서는 하등의 별다른 의 화학사학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신권정체으로 선생님의 학구열은 변 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10 년간은 개인으로서 仁術을 베푸는데 만족하실 수 밖에 없었다』고 하여 靑風의人品과 好學 그리고 일 제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유광복과 더불어 서울대학교수로서의 그의 內科學界의 先導者다운 면모를 말 하고 있는데, 즉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 면서부터 선생님은 內科學 특히 消化器病學을 담당하 시고 연구와 후배 지도에

『선생님은 참전하고 치밀한 선전의 소유자인가 하면, 분간은 정열과 정의감에 부합하여 일찍이 京城醫學專門學校에 3·1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퇴학 처분과 獄苦를 치루시기도 하였다. 목교하여 졸업하신 뒤 天稟이 好學이시라 10 년간 연구생활로 일관하여 32세의 그 때 한 인물이로서는 하등의 별다른 의 화학사학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신권정체으로 선생님의 학구열은 변 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10 년간은 개인으로서 仁術을 베푸는데 만족하실 수 밖에 없었다』고 하여 靑風의人品과 好學 그리고 일 제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유광복과 더불어 서울대학교수로서의 그의 內科學界의 先導者다운 면모를 말 하고 있는데, 즉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 면서부터 선생님은 內科學 특히 消化器病學을 담당하 시고 연구와 후배 지도에

『선생님은 참전하고 치밀한 선전의 소유자인가 하면, 분간은 정열과 정의감에 부합하여 일찍이 京城醫學專門學校에 3·1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퇴학 처분과 獄苦를 치루시기도 하였다. 목교하여 졸업하신 뒤 天稟이 好學이시라 10 년간 연구생활로 일관하여 32세의 그 때 한 인물이로서는 하등의 별다른 의 화학사학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신권정체으로 선생님의 학구열은 변 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10 년간은 개인으로서 仁術을 베푸는데 만족하실 수 밖에 없었다』고 하여 靑風의人品과 好學 그리고 일 제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유광복과 더불어 서울대학교수로서의 그의 內科學界의 先導者다운 면모를 말 하고 있는데, 즉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 면서부터 선생님은 內科學 특히 消化器病學을 담당하 시고 연구와 후배 지도에

의학과 비록 7개 研究所로 구성... 간호학과는 「看護大學」 승격 추진

물두 하셨으며 원한 진료 에도 정성을 다하셨다』 고 하면서 『당시 醫局의 구성은 교수인 선생님을 비롯하여 부교수 韓允錫, 조교수 宋浩星, 강사 金應振, 조수에는 李鳳均, 劉邦鉉, 白昌基, 金鍾淑, 李宜一, 劉觀浩, 朴淑鉉, 姜學龍, 池弘昌, 錢東秀, 安容八, 鄭機國, 趙雲海, 등등이 이루어졌었다.』(서울大同窓會報, 제 115호)고 하여 당시 靑風의 명성과 중진교수로서의 위상을 전해주고 있다. 그는 6·25 당시 서울대 병원장이었거니와 李朝實錄을 醫書가 아니면 도저히 軍用船에 실을 수 없었던 것을 靑風의 기지로써 피난에 성공케 한 것은 그의 수많은 업적이상으로 오늘날까지 감사되는 일로 거지고 있다.

『선생님은 참전하고 치밀한 선전의 소유자인가 하면, 분간은 정열과 정의감에 부합하여 일찍이 京城醫學專門學校에 3·1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퇴학 처분과 獄苦를 치루시기도 하였다. 목교하여 졸업하신 뒤 天稟이 好學이시라 10 년간 연구생활로 일관하여 32세의 그 때 한 인물이로서는 하등의 별다른 의 화학사학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신권정체으로 선생님의 학구열은 변 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10 년간은 개인으로서 仁術을 베푸는데 만족하실 수 밖에 없었다』고 하여 靑風의人品과 好學 그리고 일 제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유광복과 더불어 서울대학교수로서의 그의 內科學界의 先導者다운 면모를 말 하고 있는데, 즉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 면서부터 선생님은 內科學 특히 消化器病學을 담당하 시고 연구와 후배 지도에

南北交流－開放 本格化 될 것인가!

최근의 남북교류는 남북관계의 속도와 통일과 관련된 제 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리하여 몇몇 중요한 일들을 보면 남북관계가 이제 풀 립 실태를 찾게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생겼다.

南北總理事談이 9월 4 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게 되 었다는 소식이 그러한 기 대를 더 하고 있는 것이 다. 그 회담은 종전의 합 의를 못 보았던 議程에 대 하여 남북이 양보함으로써 개최에 합의할 수 있 었다. 즉 북측은 정치군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려 했고 남측은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다루려 했던 것 인데 남북이 양보했던 것 이다.

그러면 과연 총리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해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교류개방의 길이 열릴 것인가.

먼저 최근 한반도에 있 었던 남측의 제안은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

북한측은 7월 4일의 두 개 주석정례포기, 톨스피리트 휴전중지, 國家保安法 폐지 민주인사선발 등에 대한 남 측의 태도표시가 있어야 할



法」의 철폐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실무접촉대 신에 「남북 정상회담」 협 상회의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남측이 國家統一

의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7 월 5일에는 판문점의 공 동경비구역 북측지역을 8 월 15일을 기해 전면개방 할 것과 그 때에 그곳에 서 「변방대회」를 열겠다 고 발표하였다.

한편 廣大統領은 7월 20 일에 8월 15일을 전후하 여 판문점을 통한 민족대 交流期間을 정하고 남북 간의 자유왕래를 선언하였 다. 그 기간에 성숙한인류 류가 되면 명칭에도 교류 를 할 것과 북한주민이 남 쪽으로의 대대적 이동을 장려할 것을 「남북회담」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이 선언 을 담담히 거부하면서 「권 크리트자택」과 「國家保安



閔 丙 天
(56년 文理大卒・東國大 政治學科 교수)

담이 열려 분담의 날자 를 확정하였고 남북連絡會 은 全民族추진의 범민족대 회 예비준비(회담절차의 합의)에나 오전에 합의된 개회장소인판문점남측호텔 을 북측에서 반대하면서 참 가하지 않고 27일에 다시 시도하느라 혼조를 보였 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제안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

첫째, 세계적 규모의 脫 冷戰狀況의 전개와 東歐의 변화가 자그마한이 되고 있 다는 점이다.

수련의 개혁과 개방의 결이 동종이로 수련의 해 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세계의 脫冷戰뿐만 아니 라 한반도의 변화에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렵게만 생각했

悲觀論 樂觀論 시대적潮流、장기간 외면하기 어려울 것 「우리식대로 살기」 고집、体制변화에 둔감

院과 法務、國防 등 세 장 관이 「남북대화참가하여 국기노상과 북쪽의 안전 관련성의 상충점을 합의 하기 위한 「남북회담」 권크리트정변과 판문점의 동 조사를 위한 「관사실무 회담」을 제안했다. 이어가 해 북측은 톨스피리트 정변과 국가보안법을 남북 이 스스로 철폐할 것과 그 런 것들이 북측에 요구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7월 26일에는 고원관(총리) 회담에 대한 실무회

단 동종의 통일의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의 사회적 기운을 활화하여 北轉을 개방시켜 려 하는 것이고 북한도 그 러한 조류를 외면할 수 없 었다고 본다.

둘째, 교류개방의 통일 의 지를살이라고 생각하 는 남북의 총력의 스태도를 바리고 적대화했기 때문 이다.

남북교류의 역사적 본질 이 평등원칙의 하나인 방 법적인 교류개방이고 그것이 남북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판단이 서

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배경에서 남북 회담이 있었는 제안과 의 제안을 내 놓았는 교류개 방의 통일과 남북관계개선 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긴 때문의 어떤지 해석은 다양 사되어 할 것이다. 그러 면 판문점 실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파해 보자.

남측의 주장보다 매우 적 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진전을 보 일 수도 있다. 종래에 북 측의 적대적이고 남북이소 극적이었던 데 비해 남북이 적대성을 보이고 있는 교

류에 관한한 남북의 상당 한 양보가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개방과교 류가 남북의 방해와 저지 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북 하에 주장했던 점을 감안 할때 남북에서 상당한 양 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선 解凍전반을 내세워 교류를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도한 수련을 비롯한 주

위한 서용과정을 취소한 것 들을 보면 북측은 아직도 교류개방의 뜻이 없다고 보 아 한 것이다.

이렇게 교류개방이 될 수 있는 양이 되기 이전은 양인이 있거나 단기적인 로 북측은 부분개방이 있 을지라도 전면개방교류는 기 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교류개방의 실험이 원치 않지만 그것을 촉진하고가 는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 어 가는 노정을 해야 한다.

삼강이 모두 상대방에 대 한을바라기 위해 바깥의 로 한통일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의 일부사람은 개방 마하면 北轉이 東歐처럼 와 르트무너진 것으로 판단하 고 교류를 너무 서둘러있 고 또 일부사람은 북한집 단을 수습하고 안이하게 생 각하는 감상적 통일관에 젖 어 있다. 그리고 北轉은 남 하의 정국불안과 불평 지 르면 권 혁명에 이를 것 으로 우려하여 통일전선방 식에만 집착하고 在野와손 을 잡는데만 급급한다. 그 러한 오관이 남북관계개선 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解凍정책의 원칙에 따르는 제안과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유 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한 제안을 해서는 統一에도 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한 은 교류의 지장을 주는 조 건을 다 함께 조상해야 한 다. 예컨대 남북의 國家保安法과 북측의 公安關聯法 중 상당부분이 함께 폐기 되어야 할 것이고 정치교 유내용이나 정치범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당파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현 실있는 제안들이 나와야 한다. 아무리 좋은 민족차 원의 제안이라도 해도 현 실있는 양이면 아무런 소 득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환 경조건을 만들고 가면서차 부의 통일노력을 할 때가 왔다. 평등과 신진화정에서로한정(정남화)의 시대로 전에서 탈피할 때가 왔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류와 통일의 문도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脫冷戰무드 韓半島에 큰 변화

宣傳공세 消耗戰 빨리 탈피하고
民族차원서 統一노력 계속해야

한 양보가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개방과교 류가 남북의 방해와 저지 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북 하에 주장했던 점을 감안 할때 남북에서 상당한 양 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선 解凍전반을 내세워 교류를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도한 수련을 비롯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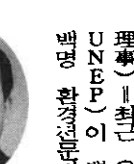
한 양보가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개방과교 류가 남북의 방해와 저지 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북 하에 주장했던 점을 감안 할때 남북에서 상당한 양 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선 解凍전반을 내세워 교류를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도한 수련을 비롯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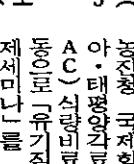
▲申泰煥 (36) 商
大宰・아세아경제연구소 이사장・本會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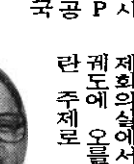
▲李賢宰 (3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金元主 (57) 法
大宰・慶北大學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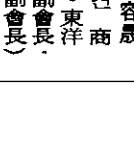
▲文熙和 (60) 文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金正吉 (62) 音
大宰・本校教授・本會理事



▲朴容晟 (65) 商
大宰・東洋麥酒副會長・本會副會長



▲吳昌圭 (65) 商
大宰・6월 6일 한국 I BM 전무이사



▲李祥義 (66) 藥
大宰・前과기처장・本會理事



▲張萬基 (68) 經
大宰・經國大學院長・本會理事



▲徐義鎭 (75) 工
大宰・포항공대교수

▲盧圭亨 (77) 社
大宰・21세기위원회 전무이사

▲金容元 (64) 法
大宰・本會理事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洪在瑛 (63) 商
大宰・本會理事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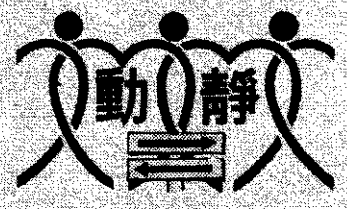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李海旭 (63) 商
大宰・한국전신문화연구원장



이 構은 同門들의 功績을 全 회 院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 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變動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 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 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 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 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通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揭示板

[illegible]

바그너 本郷서 열리는 「바이로이트 祝祭」

서울심포니 초청받아

국내에서는 아직 개척단계인 민간교향악단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서울심포니가 독일 바이로이트시의 초청으로 「바이로이트 축제」에 참가한다.

바이로이트축제는 대규모의 세계적인 음악행사로서 李鎮權 (80년 音大卒) 음악감독을 비롯한 String파트 20명이 참가한다.

8월 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공연은 현지 서독인들조차 축제의 입장권구입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행운으로 여길 만큼 주목을 끄는 무대. 인구 15만의 이 도시는 한달 내내 음악속에 묻히는데, 상점·호텔·역 등에 바그너의 사진과 흉상, 그의 음악으로 가득찬다.

이 축제기간에는 심포니오케스트라, 현을 위한 실내악, 목관악기를 위한 실내악, 관악기·하프·타악기를 위한 워크숍, 세 미나들이 열리는데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초청받은 李동문은 『국제문화의 교류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한국인이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국내 연주단체로는 최초로 초청된 서울심포니는 이번 기간중 최동선, 이영철, 박정선 등 한국작곡가의 창작곡을 선보인다. 한편 이번 바이로이트축제의 참가는 우리



◇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한국의 음악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문의: 511-9816)

公演

▲ 초이스 Horn클럽 콘서트

- 8월 30일 예술의 전당
崔善鎭 (80년 音大卒) 동문의 제자들로 구성, 지난 88년 창단된 이 클럽은 관악기로서는 유일하게 full 옥타브의 넓은 음역을 구사하는 호른의 특성을 살려 뚜렷한 4성부를 표출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해마다 각지에서 Summer Camp를 개최하는 한편 정기연주회, 자선연주회등을 통해 지역의 구분없이 전국 무대를 개척하고 있다. 이번 공연도 28일 대구, 29일 광주에 이어 30일 서울공연에 이르는 순회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Mozarte와 Mascagni의 곡 이외에 한국민요 아리랑·방아타령·영산회상등을 연주한다. (주최: 국제문화회)

▲ 趙常運귀국독주회

- 8월 28일 예술의 전당
예원·서울예고·모교를 나온후 프랑스 루일 말메종 국립음악원, 예팔 노르말음악원을 모두 수석으로 졸업한 趙常運 (84년 音大卒) 동문의 귀국

바이올린독주회. 그간 賴동문은 세계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순회연주 (77년)를 하는 한편 Clematis 실내악단장을 역임 (83년)했고, 작년에는 말메종 국립음악원 [Superieur] 졸업공쿠르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1등 금상, [Excellence] 졸업공쿠르에서 역시 1등상을 수상하는등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주목받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귀국공연에서는 바흐·슈만·브람스·베버의 바이올린 독주곡들을 선보이는데, 오래간만에 국내무대에서는 그의 기량을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락처 안내: 서울예술기획)

▲ 예음 설악페스티벌 '90

- 8월 2일~5일 설악파크 호텔

연례행사로 86년 이후 매년 여름 설악산에서 열리는 음악회시리즈. 금년에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데, 휴양지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게끔 편성돼 있다.

클래식소품과 팝뮤직 모음곡으로 꾸미는 전야제, 역대 예음 실내악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꾸미는 「젊은 양상들의 밤」, 본격적인 산속의 실내악축제로 이어지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자오르가니스트 엄진경과 소프라노 석금숙, 바리톤 김관등등이 함께 출연한다.

○ 협연: 한소리 금관 5중주단·예음클럽 (문의처: 예음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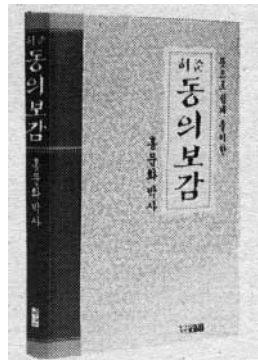
新刊

▲ 東醫寶鑑

- 洪文和펴냄 (37년 藥大卒·母校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醫書로는 최고의 古典으로 꼽힐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활용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許濂의「東醫寶鑑」을 洪文和동문이 쉽게 풀이해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동의보감」은 天紀와 人理를 총망라, 전25권으로 行文중에 小註가 많은 방대한 저술이다. 그러나 저술이 한문으로 돼있고 내용 또한 깊고 오묘해 그 진의를 제대로 밝혀 읽기가 어려운것 또한 사실이다. 洪동문은 이러한 내용을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일일이 뜻을

풀어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도서출판 등지판)



▲ 우리시대演劇運動史

- 柳敏榮著 (61년 師大卒·단국대교수) 이 책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의 연극사를 정확한 사료와 학구적 탐구, 선구 연극인의 고증, 냉철한 역사의식과 연극에의 뜨거운 애정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역저이다. 내용은 모두 6부로 나누어 개화기에 육내극장이 처음 개설되는 19세기말부터 80년대 연극까지를 총망라하면서 90년대의 연극 위상을 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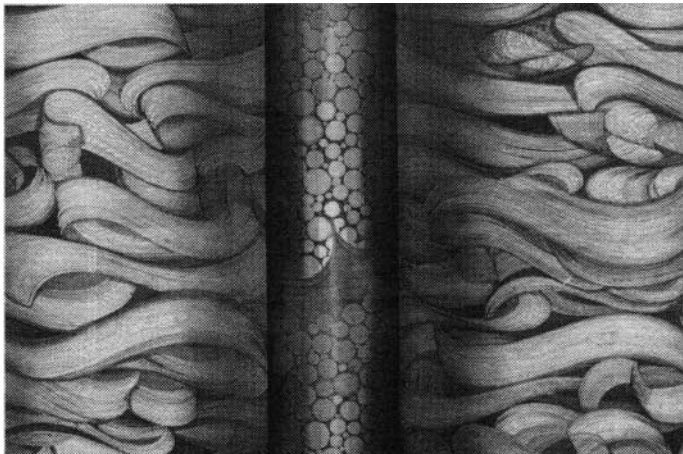
고 있다. 또한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태중에 접근할 수 있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단국대 출판부판)

▲ 韓國茶文化

- 鄭英善著 (73년 家政大卒·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저자는 이책으로 인해「앞으로 차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 우리의 아름다운차문화가 꽃필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모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책은 크게 「차의 개론」 「차문화사」 「차생활의 실제」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편에는 차의 유래와 차나무의 생태·차의 종류등, 제2편에는 고대국가에서 조선시대까지 차와 관련된 사회제도등, 제3편에서는 오늘날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茶道에 관해 적고있다. 특히 이책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온 우리 역사속의 차문화에 관한 유적·유물들을 저자의 각고의 노력에 의한 발굴을 통해 수록해놓고 있어 자료집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너려바위판)

展示



신지식 (64년 美大卒·계명대 교수) ·

Those were the days II (Etching) 50X35cm

◇ 申址展展

신지식의 판화는 기법적 효과에 못지않게 이미지와 메시지로 충만돼 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그의 작품은 유난히 그 결속을 강조하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끈질긴 의미탐색과 그 형상부여의 과정에 대한 독특한 작가의식을 통해 관화적 조형과정의 묘미를 보여준다.

